

# 강진군, 강진교차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완료

강진군은 산림청 공모사업비 1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성전면 강진교차로 일원 1ha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강진산단 진입로인 강진교차로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홍가시, 동백, 단풍나무 등 총 14종 5,096주의 교목과 관목을 다층구조로 심어 혼실가스 흡수, 폭염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변 경관을 개선했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생활권 주변에 숲을 조성해 여름철 지표면 온도 저감, 대기질 개선, 탄소흡수,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낮추고 습도는 9~23% 상승시키며 큰 나무들은 10db의 소음 감소 효과가 있다. 또한 나무 1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흡수량은 35.7g이며 도시숲

1ha는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김진근 산림과장은 “폭염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도시숲으로 강진 관문인 강진교차로를 산뜻하게 개선하고 산단 인근 오염물질을 줄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유휴공간을 중심으로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강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준공 이후에도 수목 생육상태와 조성 부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시숲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군은 조성된 도시숲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생활권 중심의 도시숲을 확대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다.

/전운재 기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 무안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무안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2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며, 공공근로사업 95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4명 등 총 129명의 참여자를 선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 등 70개 사업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역아동센터 학습 및 돌봄도우미, 여성원어민강사 아동학습지원 등 15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의 무안군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다.

/서용운 기자

## 목포대전환, 아이디어 열차 출발



목포행 아이디어 열차 배너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민선9기 강성희 목포시장 당선인의 시정준비기구인 '목포대전환 준비위원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준비를 위해 온라인 시민소통 채널 '목포행 아이디어 열차'를 개설했다. 해당 채널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의견 접수창구로, 6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시민들은 시정 목표, 정책 제안, 생활 불편 사항, 지역 현안, 시정 발전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사진과 자료도 함께 첨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준비위원회는 접수된 의견을 분야별로 분류해 시정 과제 발굴과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제안을 민선9기 시정 비전과 공약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해 시민 참여형 시정 운영을 추진한다. 고석규 위원장은 시민 의견이 목포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성태 기자

## 함평군, 민선9기 인수위 함평대전환 발전위 개최

민선 9기 함평군수직 인수위원회인 '함평대전환 발전위원회'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함평군은 21일 "함평대전환 발전위원회가 지난 19일 인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청년·인구정책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인구 유입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인수위원들은 "인구정책이 특정 부서만의 과제가 아닌 전 부서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군정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시 인구 증가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함평대전환 발전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과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 신안 수국 꽃길, 치매극복 걷기 챌린지

신안군은 2026 섬 수국축제와 연계하여 6월 19일(금)부터 28일(일)까지 10일간 '한마음치매극복 걷기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치매를 일상 속에서 예방하고,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뇌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 예방의 핵심인 '꾸준한 걷기'를 실천하는 이번 행사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해 진행된다. 신안군민뿐만 아니라 축제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총 7만 걸음(하루 최대 1만 걸음 인정)을 달성한 후 '응모하기'를 누르면 워크온 시스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150명에게 모바일 쿠폰(1만 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6월 29일 이후 앱 공지 및 개별 문자를 통해 발표된다.

/박성태 기자

## 영암군, AI 기반 스마트홈 돌봄 시범사업 추진

영암군이 보건복지부의 'AI 스마트홈 AX-Sprint 및 시범사업'에 선정돼 돌봄이 필요한 군민을 대상으로 AI 기반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영암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0가구,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25가구, 만성질환자 25

가구 등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스마트워치 등 AI 스마트 돌봄기기 6종이 지원된다. 기기를 통해 긴급상황 대응, 안부 확인, 건강관리, 인지 지원, 정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필요한 돌봄서비스

와 연계하는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영암군은 대상자 발굴과 모니터링을 맡고,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 등 현장 인력과 협력해 기기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관리사업과 통합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사업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